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1분기 미 생산비용, 당초보다 상승세 낮아
- Bloomberg: 작년에 미 일자리 증가 수준, 당초만큼 높지 않아
- Bloomberg: 4월 미 무역적자, 2022년 10월 이래 가장 컸다

[금융]

- CNN Business: 엘런 연방 재무장관, “금융 분야 AI, 커다란 리스크 가능성”
- Bloomberg: 국채 하락...유럽중앙은행 인플레이 전망 상향 조정

[뉴욕시]

- Bloomberg: ‘맨해튼 통행세’ 연기에 뉴욕시 지하철 개보수 힘들어

[미국 생활]

- WSJ: 미국인들 장거리 출퇴근 늘어난다
- NYT: 뉴욕 등 대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위기

[원유]

- Bloomberg: OPEC+ 증산 계획 변경 가능성에 유가 상승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여름 앞두고 스포츠용품사 신제품 준비
- Bloomberg: SpaceX의 스타십 로켓, 네 번째 주요 시험 시행했다
- Bloomberg: 항공사들, 원샷 체크인으로 모든 항공사 이용 가능한 서비스 출시
- CNBC: 월마트, 숙련된 일자리 직원용 훈련 프로그램 시행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First-Quarter US Labor Costs Marked Down on Weaker Output, Hours

1분기 미 생산비용, 당초보다 상승세 낮아

- 올해 1분기의 단위당 노동비용이 연이율 조정치로 4% 상승했다. 당초 발표된 4.7%보다 낮은 것으로 오늘 연방 노동청 통계를 통해 밝혀졌다. 근로자의 노동량 감소로 당초 추정치보다 낮은 속도로 노동비용이 상승한 것이다.
- 1년 전과 비교하면 단위당 노동비용은 단지 0.9%만 상승해 3년 만에 상승 속도가 가장 낮았다.

- 비농가 근로자의 시간당 생산성은 1분기 동안에 0.2%로 약간 하향 조정됐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Payroll Gains Not as Robust as Reported, BLS Data Suggest

작년에 미 일자리 증가 수준, 당초만큼 높지 않아

- 작년에 연방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월평균 고용은 25만개였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6천개 더 적을 수 있다고 어제 연방 노동부 데이터는 시사했다.
- 한마디로 연준 파월 의장과 관리들의 생각보다는 미 노동 시장이 덜 견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Ironsides Macroeconomics의 설립자인 Barry Knapp는 작년 기존 발표는 노동 시장의 여건을 과대평가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노동시장은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낮다”고 평가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Trade Gap Widens to \$74.6 Billion, Largest Since October 2022

4월 미 무역적자, 2022년 10월 이래 가장 컸다

- 4월 미 무역적자가 자동차, 컴퓨터, 산업 공급품 수입 급증으로 지난 2022년 10월 이래 가장 컸다.
- 상품과 서비스 무역적자는 지난 3월보다 8.7% 늘어난 7백46억달러라고 연방 상무부는 오늘 목요일 발표했다.
- 수입 규모는 2.4% 상승해 지난 2022년 중반 이래 가장 상승한 반면에 수출은 0.8%만 상승했다. 이들 수치는 인플레이 조절을 감안하지 않은 수치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CNN Business: Janet Yellen warns AI in finance poses 'significant risks'

엘런 연방 재무장관, “금융 분야 AI, 커다란 리스크 가능성”

- 옐런 장관은 오늘 은행 관계자들과 테크 기업 경영진에게 “인공지능이 금융 시스템에 커다란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험을 야기하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할 예정이다. 그는 오늘 연방 재무부에서 그리고 내일 금요일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각각 관련 발표를 할 예정이다.
- 그는 AI모델의 복잡성과 불투명성 뿐만 아니라 AI 리스크를 둘러싼 충분치 않은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와 더불어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똑같은 데이터와 모델에 의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호 의존성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CNN Business 기사

Bloomberg: Bonds Fall as ECB Inflation Outlook Lifts Euro: Markets Wrap

국채 하락...유럽중앙은행 인플레이 전망 상향 조정

- 글로벌 채권시장이 올해 들어 가장 긴 상승세를 보인 후에 힘이 약화된 모습을 보였다. 유럽중앙은행이 예상대로 금리를 내린 후에 유럽의 인플레이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다.
- 유럽중앙은행 관리들은 인플레이 전망치가 확실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은 “필요하다면 오랫동안 제약적인 금리 조치를 계속 취하겠다”고 말했다.
- 이같은 언급은 미국 트레이더들이 내일 금요일 일자리 발표 예의 주시할 상황에서 미 국채 등 채권 금리들이 올랐다.
- 10년물 미 국채는 2베이시스 포인트 증가한 4.30%에서 거래 중이며 유로는 0.1% 상승했고 독일 국채는 4베이시스 포인트 오른 2.55%에서 거래 중이다.

Bloomberg 기사

[뉴욕시]

Bloomberg: NYC Braces for More Subway ‘Hell’ as Toll Reversal Risks Repairs

‘맨해튼 통행세’ 연기에 뉴욕시 지하철 개보수 힘들어

- 뉴욕주지사 Kathy Hochul이 막판에 맨해튼 미드타운 통행세 시행을 연기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뉴욕시 지하철이 지난 2017년 여름에 ‘악몽’이 재현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 당초 맨해튼 통행세가 시행되면 이로 인한 수입으로 뉴욕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개보수할 예정이었다.

- 즉, 노후화된 지하철 시스템으로 인해 탑승객들은 서비스 지연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미국 생활]

WSJ: America's Commute to Work Is Getting Longer and Longer 미국인들 장거리 출퇴근 늘어난다

- 최근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장거리 출퇴근이 크게 늘어났다. 이는 주거 비용 상승과 하이브리드 근무의 확산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 스탠포드 대학교 이코노미스트 닉 블룸과 알렉스 피난의 연구에 따르면, 2020년 이후 75마일 이상의 이른바 '슈퍼 통근'이 32%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50~74마일의 출퇴근은 18% 증가한 반면, 35마일 미만의 출퇴근은 감소했다. 이 연구는 2023-24년과 2019-20년 4개월 동안 2백만 건의 아침 통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이다.
- 도심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움직임은 전후(postwar) 경제가 교외화를 주도하면서 수십년간 지속었으며, 최근에는 재택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발전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WSJ 기사

NYT: Office Building Losses Start to Pile Up, and More Pain Is Expected 뉴욕 등 대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위기

- 팬데믹 초기부터 뉴욕 등 대도시의 대형 빌딩 소유주들은 근로자들이 사무실로 돌아와 상업용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기를 기대했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하이브리드 근무가 일반화되면서 건물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일부 부동산은 차압에 들어가거나 10년 전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각되어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주고 있다.
- 심각한 위기에 처한 오피스 빌딩의 수는 아직 적지만, 올해 들어 급격히 증가했다. 투자자, 변호사, 은행가들은 오피스 공간 수요가 여전히 낮고 이자율과 기타 비용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몇 달 동안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 이 문제는 건물 소유주와 대출 기관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계속 하락하면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같은 도시의 재산세 수입이 줄어들어 급여 지급과 공공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빈 사무실 건물은 주변 식당과 기타 비즈니스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NYT 기사

[원유]

Bloomberg: Oil Gains as OPEC+ Ministers Reject Reaction to Output Increase

OPEC+ 증산 계획변경 가능성에 유가 상승

-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OPEC+의 생산량 변경 계획을 되돌릴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유가가 이를 동안 상승했다.
-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는 배럴당 74달러 이상, 브렌트유는 79달러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는 10월에 시장에 공급을 추가하기로 한 OPEC+의 결정 이후 급격한 매도세에서 회복된 것이다. OPEC+의 장관들은 필요하다면 생산량 변화를 중단하거나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기술적 요인도 유가 상승을 도왔다. 매도세로 인해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와 브렌트유가 14일 상대강도지수에서 모두 과매도 영역으로 밀려나면서 가격 반응이 과도했음이 나타났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Sporting-Goods Companies Warm Up for Busy Summer

여름 앞두고 스포츠용품사 신제품 준비

- 스포츠웨어 브랜드들이 다가오는 여름의 주요 스포츠 이벤트를 앞두고 신제품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고 정리를 위한 할인을 시행하고 있지만, 판매 수익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달 말에는 독일에서 열리는 축구 유럽 선수권 대회와 미국에서 열리는 코파 아메리카가 예정되어 있으며, 7~8월에는 파리 올림픽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등의 스포츠웨어 브랜드들은 신제품을 선보이고 광고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애널리스트 Bryan Garnier는 소비자들이 프리미엄 제품에 대해 기꺼이 지불하는 경향이 있어, 브랜드들은 일반적으로 주요 스포츠 대회 기간 동안 특별한 컬렉션을 출시하여 이를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WSJ 기사

Bloomberg: SpaceX's Giant Rocket Blasts Off on Fourth Major Test SpaceX의 스타십 로켓, 네 번째 주요 시험 시행했다

- Space X의 '스타십 로켓(Starship rocket)'이 지구 대기권을 통과해 일론 머스크의 우주선 상용화 목표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스타십은 텍사스 남단에서 이륙한 후 한 시간이 조금 지난 뒤 인도양에 착륙했다. 대기권을 통과하며 파편을 떨어뜨렸지만, 세 번째 시험보다 더 오랫동안 신호를 유지했다.
- SpaceX는 바다에 떨어지기 직전에 스타십의 엔진을 재점화하라는 명령을 보냈는데, 이는 속도를 늦추고 방향을 바꾸기 위한 시도였다. 회사의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엔진이 재점화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성공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 사람들이 스타십을 타고 우주로 여행하는 것이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생명 유지 시스템, 궤도에서 스타십에 연료를 보급하는 방법, 우주선을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방법 등을 해결해야 한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Airline Group Aims to Lure Travelers by Cutting Transit Hassles 항공사들, 원샷 체크인으로 모든 항공사 이용 가능한 서비스 출

- 아메리칸 항공과 영국 항공이 주도하는 항공사들의 연합체인 원월드(Oneworld)가 올해 말에 여러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들을 위한 편리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한 번의 체크인으로 수하물을 포함한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러 항공사를 거치는 승객들이 훨씬 수월하게 된다.
- CEO Nat Pieper는 이러한 개선이 비용 절감과 수익 증대를 이루는 동시에 환승 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항공사를 이용하는 여행 경험이 한 항공사를 이용하는 것과 동등한 만족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CNBC: Walmart rolls out new training programs for skilled trades as it tries to fill high-demand roles 월마트, 숙련된 일자리 직원용 훈련 프로그램 시행

- 월마트는 구인이 쉽지 않은 일자리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매장과 웨어하우스 직원들을 대상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이 회사는 약국이나 냉난방 관련 기술자 등 구인이 쉽지 않는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회사는 이같은 일자리를 원하는 직원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달라스에서 우선 시행 중이다.

CNBC 기사

"美S&P500·나스닥 최고가 마감...엔비디아 효과·금리인하 기대감"

"엔비디아 주가 5%대 급등, 시총 3조 달러 진입...기술주 동반 상승"

노동시장 과열완화 기대에 9월 금리인하 기대↑...채권금리도 하락"

미국 뉴욕증시에서 인공지능(AI)칩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5%대 급등하면서 스탠드더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62.69포인트(1.18%) 오른 5,354.0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30.86포인트(1.96%) 오른 17,187.90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S&P 500 지수는 지난달 21일 이후 10거래일 만에, 나스닥 지수는 지난달 28일 이후 6거래일 만에 각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